

2. 투자 정보 및 IR 자료 (핀다)

핀다는 설립 이래 여러 차례의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 자금을 확보해왔습니다. 초창기에는 엔젤투자자와 시드 자금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, 2016년 7월에는 초기 **시드 투자 유치**를 받아 금융상품 정보 포털 서비스 구축에 활용했습니다.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이어졌고, 시리즈 A 투자를 통해 서비스 고도화 및 앱 출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. 공식적으로 공개된 주요 투자 유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**시리즈 A 이전:** 2016년경 소규모 시드 및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 (구체적 금액 미공개). 이를 바탕으로 2016년 핀다 웹 서비스 출시와 초기 서비스 운영이 가능했습니다.
- **시리즈 B (2021년 1월):** 약 **115억 원** 규모 투자 유치. 이 라운드에는 전략적 투자자로 자동차 제조회사 기아(KIA)가 참여했고, 기존 투자자였던 미국계 VC **500 스타트업(현재 500 글로벌)**의 메인 펀드 등이 함께 투자했습니다. 시리즈 B 당시 핀다는 **혁신금융서비스** 선정과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등의 성과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으며, 이 자금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준비와 사용자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.
- **시리즈 C (2023년 7월):** **470억 원**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. 전북은행을 계열사로 둔 JB 금융그룹이 **전략적 투자자(SI)**로 새로 참여하여 15%의 지분을 확보했고(투자액 중 JB 금융지주 5%, 전북은행 10%), 기존 투자자인 500 글로벌도 후속 투자를 집행했습니다. 시리즈 C 투자유치로 핀다의 **누적 투자금은 약 644억 원**에 이르렀습니다. 이번 라운드는 핀다가 약 2년 반 만에 유치한 후속 투자로, 국내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 주목을 받았습니다. JB 금융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핀다는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동맹을 구축하였고, 이에 따라 JB 금융 측은 핀다에 전략적 지원을 약속하고 핀다는 reciprocally JB 금융지주 지분 일부를 매입하여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.
- **누적 투자 현황:** 시드부터 시리즈 C 까지 총 투자유치액은 약 **650억 원** **내외**로 추정되며, 주요 투자자로는 500 Global(미국 VC), KIA(대기업 전략 투자), DSC 인베스트먼트, KDB 산업은행 계열 펀드 등 여러

재무적투자자(FI)와 전략투자자(SI)가 있습니다. 특히 JB 금융의 참여 이후 핀다는 금융업권과의 협업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였고, 대출상품 공동개발 및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등 금융지주와의 **시너지 전략**을 펼치고 있습니다.

핀다는 **비상장 스타트업**이므로 공식적인 IR 자료(Investor Relations)를 공시하지는 않지만, 투자 유치 시마다 언론 보도와 자체 블로그를 통해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해왔습니다. 예를 들어, 2023 년 시리즈 C 투자 유치 발표 때는 “**금융 메기가 되겠다**”는 포부를 밝혔는데, 이는 대형은행과 빅테크 사이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**메기 효과**를 노리겠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. 이 자리에서 핀다는 누적 대출중개액, 사용자 편익 지표 등을 공개하며 자신들의 시장 위치를 강조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2022 년 한 해에만 약 4 조 원에 달하는 대출을 핀다를 통해 중개했으며, 그 중 1 조 원가량은 타기관 대환 목적의 대출이었습니다. 이러한 숫자는 투자자들에게 핀다가 이미 상당한 거래 규모를 가진 플랫폼임을 어필하는 IR 포인트였습니다. 또한 **누적 대출중개액 7 조 원 돌파, 사용자들의 대출관리 총액 70 조 원 규모** 등 성장 지표를 공유하여 핀다의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.

시리즈 C 투자 당시 JB 금융과의 협력 계획도 IR 측면에서 강조되었습니다. JB 금융은 핀다 투자를 통해 핀다의 혁신 플랫폼 역량을 활용한 **비대면 전용 대출상품 공동개발, 대안신용평가 모델(핀다스코어) 고도화**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핀다 입장에서는 대형 금융그룹과의 제휴를 통한 고객 신뢰 증대, 안정적 자금 확보 등의 효과를 얻게 되어 향후 IPO 나 추가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 현재 핀다는 상장 전 성장 단계로, 구체적인 기업공개(IPO)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시리즈 C 이후 기업가치 상승과 수익 모델 다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몇 년 내 IPO 를 준비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.

요약하면, 핀다는 설립 이래 **여러 단계의 벤처투자**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사업 확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. 특히 최신 라운드에서 **470 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**를 받아 자본금과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였고, 이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 중개, 보험·예금 비교 서비스 개발, AI 기반 부정거래탐지시스템(FDS) 구축 등 새로운 사업과 기술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 투자자 구성도 글로벌

VC 부터 자동차회사, 국내 금융그룹까지 다양하여 핀다가 지닌 성장성과 비전이
다방면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